축구, 사랑에 빠지다 | 축구협회도 당황하게 만든 '벤투호 향한 뜨거운 팬심'

벤투호 영건들? 벤투호 아이돌!

1 친선경기 입장권 3시간만에 매진
2 오픈트레이닝 티켓도 순식간 동나
3 김문환 현수막 팬이 직접 수거 소장
4 영건들 SNS 소통, 팬과 거리감 해소
5 U-16·U-19까지 '팬덤' 확대 기현상

축구국가대표팀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엄청나다. 10월 2차례 평가전은 물론 13일로 예정된 대표팀 오픈트레이닝 참관 티켓 700장도 순식간에 동이 났다. 일부 태극전사들은 아이돌 그룹 못지않은 사랑을 받고 있다. 9일 훈련에 앞서 미팅을 갖는 대표팀 선수들과 코칭스태프. 파주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한국 축구국가대표팀을 향한 관심이 엄청나다. 1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우루과이와의 평가전에 이어 16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질 파나마와의 친선경기 입장권은 온라인 예매 시작 직후 2~3시간 만에 매진됐다.

그뿐이 아니다. 13일 경기도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에서 예정된 A대표팀의 오픈트레이닝 입장권(700장)은 9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선착순 배분됐는데, 발매와 동시에 매진됐다. 오픈트레이닝을 참관하는 팬들에게는 입장료를 따로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해 입장권을 선착순 배부하게 된 이유는 지난달 예상보다 너무 많은 팬이 오픈트레이닝 현장을 찾아 혼란을 빚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는 티켓을 보유한 팬들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정리해 행사 당일 혼란을 최소화했다. 이는 A대표팀 오픈트레이닝을 실시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A대표팀과 선수들에 대한 관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한축구협회에는 선수들의 귀국 스케줄과 대표팀의 훈련 스케줄을 물어보는 팬들의 문의전화가 쏟아졌다. 축구협회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이러한 문의를 해오는 사례가 과거에 비해 확연히 늘었다. 축구협회 관계자들조차 갑작스러운 A대표팀의 인기몰이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시작점은 2018러시아월드컵이었다. 대표팀은 2018러시아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 독일과의 경기에서 극적인 승부를 연출하며 2-0으로 승리했다. 16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선수들이 투혼을 보이자 팬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또한 월드컵에 참가했던 다수의 선수들이 선발돼 출전한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에서 한국 23세 이하(U-23) 대표팀은 화려한 공격력을 앞세워 16강전부터 승승장구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A대표팀 사령탑으로 파울루 벤투(49·포르투갈) 감독을 영입한 효과도 누리고 있지만 최근 팬들이 A대표팀을 향해 보이는 반응은 단순한 관심 그 이상이다.

한 예로 K리그2(2부 리그) 부산 아이파크는 홈경기 홍보를 위해 제작한 김문환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경기 후에 별도로 수거할 필요가 없었다. 팬들이 구단으로 문의해 김문환 사진이 담긴 플래카드를 소장용으로 다 가져간 것이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멤버인 김문환은 벤투호에도 선발돼 A대표팀 멤버로도 활약하고 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특히 연령대가 어린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 같다. 아이돌 그룹에 대한 관심 수준인 듯 하다. 대표선수들이 모이면 파주 NFC에 도착하는 선물도 이전보다 대거 늘어났다. 협회 SNS에 연결된 팬도 10% 정도는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관심은 A대표 선수들만이 아니다. U-16, U-19 대표팀에 소속된 선수들에 대한 관심도 높다. 팬덤이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형욱 MBC해설위원은 "9월 A매치 현장에서도 어린 여성 팬이 많이 늘었다는 걸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승우 등 젊은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요즘 젊은 선수들은 SNS 등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데 있어 거리낌이 없다. 팬들과 온라인상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니 팬들이 느끼는 거리감도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전에도 월드컵 직후 대표팀이나 선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현상은 있었다. 그러나 예전에는 팬과 선수들 사이에 일정 수준의 거리가 있었다"면서 "그런데 이번은 확실히 다른 것 같다. 선수들이 팬들과 호흡하면서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내가 왜 떴게?

감놔라 배놔라 애놔라

김민교

●김민교, 알아서 할게요 : "저희가 알아서 할 게요". 배우 김민교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어떤 일이든 후회와 행복은 같이 옵니다.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저희가 알아서 할 게요"라는 내용이다. 김민교는 최근 SBS플러스 '야간개장'에 출연해 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사연을 털어놨다. 방송 이후 온라인에서는 "아이를 낳아야 한다"와 "타인이 참견할 일이 아니다"가 팽팽히 맞섰던 모양이다. 감놔라 배놔라도 아니고 '애 낳아라' 라니. 사진 속의 김민교는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꽤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다.

제 연기는 '미달'이 아니거든요?

김성은

●미달이, 연극 : 전설의 시트콤 '순풍산부인과'의 미달이. 배우 김성은이 연기활동을 재개한다. 드라마, 영화가 아닌 연극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11월 개막하는 연극 '보잉보잉'이다. 바람둥이 남자가 미모가 뛰어난 스튜어디스 세 명을 동시에 사귀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은 작품으로 무려 17년째 대학로에서 공연 중인 스테디셀러다. 김성은은 1998년 SBS '순풍산부인과'에서 박영규의 딸 미달이로 출연해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최근에는 아프리카TV에서 BJ로도 활동 중. 참고로 별풍선과 티켓은 별도 구매하셔야 합니다.

"저 살아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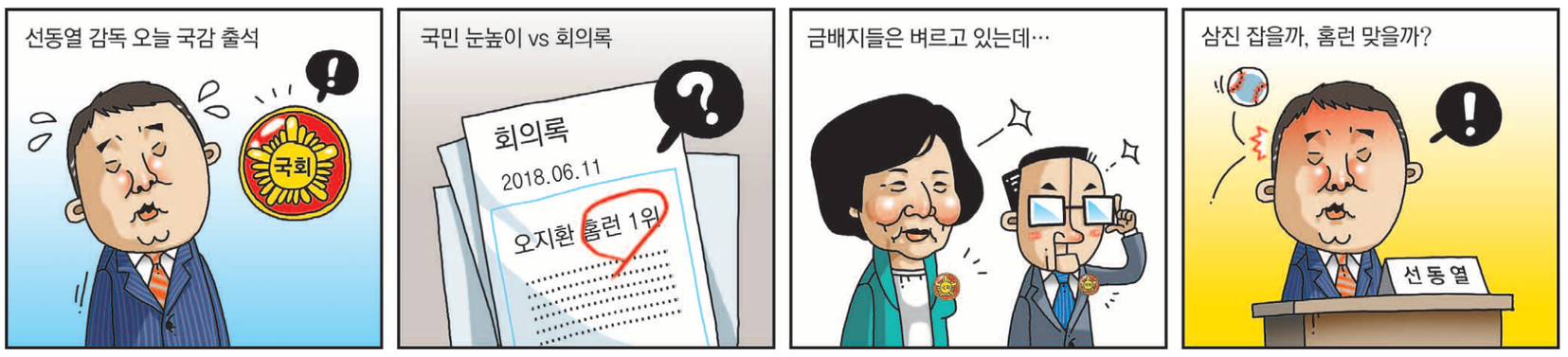
판빙빙

●판빙빙, SNS복귀 : 판빙빙 팬들의 안도의 한숨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다. 판빙빙은 자신의 SNS에 "여러분의 마음을 느꼈다. 여러분이 그립다"라는 짤막한 글을 썼다. 요즘 표현으로 '생존신고'에 가까운 글이다. 판빙빙의 활동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세금 탈루 혐의로 신변의 위협설까지 나돌았던 판빙빙은 최근 9억 위안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돈으로 15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이다. '29만원'은 중국에서는 통하지 않는 모양이다.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유진한 기자의 카!툰

haja1787@donga.com



방탄, 영화로 나온다

성장기 담은 극장용 '번 더 스테이지' 11월 CGV 개봉…해외 개봉도 추진

세계적인 그룹으로 우뚝 선 방탄소년단의 이야기가 영화로 나온다.

'번 더 스테이지 : 더 무비'(Burn The Stage :The Movie)라는 제목의 영화는 방탄소년단의 성장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11월15일 멀티플렉스 극장체인 CGV에서 단독 개봉한다. 국내를 넘어 미국, 호주 등지에서도 개봉을 추진 중이다.

방탄소년단 팬들에게는 익숙한 '번 더 스테이지'는 사실 올해 초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의 유료 회원서비스인 '유튜브 레드'를 통해 한 차례 공개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엔 방탄소년단이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키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는 만큼 영화로 나오게 됐다. 당시 미처 담지 못했던 이야기 등을 추가·재편집해 1시간 25분가량의 극장 상영용으로 재탄생됐다.

영화에는 방탄소년단이 2017년 한 해 동안 세계 19개 도시에서 펼친 '2017 BTS 라이브 트릴로지 에피소드 Ⅲ 더 윙스 투어'의 뒷이야기가 담겨 있다.

무대 위의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무대 아래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며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방탄소년단의 진가를 다시 한번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멤버들의 의견 충돌이나 무대 뒤에서 힘들어하는 모습 등 리허설 전 과정이 모두 담긴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하게 노력한 흔적의 결과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최근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스타디움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방탄소년단에 대한 관심은 끊이질 않고 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최근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팝 가수"라고 극찬했고, 음악 전문지 롤링스톤도 "일곱 멤버들은 이전 케이팝 그룹이 가지 못한 길을 당당히 걸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당시 공연장을 한국어 '떼창'으로 가득 메운 것과 관련해 "방탄소년단의 노래 가사 대부분은 한국어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가사를 찾아보기 전까지 오히려 더 신비하게 느껴지고 방탄소년단이 전하는 메시지는 정말 아름답다"라는 팬들의 인터뷰까지 상세히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한류 확산과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면서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문화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이는 아이돌 가수 최초이자 역대 최연소 수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화관문화훈장을 수여한다.

이와 관련해 9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572돌 한글날 경축식 축사에서 "세계의 젊은이들은 방탄소년단의 한글 노랫말을 받아 적고 함께 부른다"고 방탄소년단을 언급해 화제를 모았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619억 흑자 평창에 드리운 그림자

흑자 올림픽 IOC 총회서 보고 불구 경기장 유지·사후 활용 방안 불투명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흑자올림픽 달성을 자축했다. 그러나 연간 수십 억원의 유지관리비용이 필요한 각 경기장은 아직 활용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희범 대회 조직위원장은 9일(한국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133차 IOC총회 최종 보고를 통해 "IOC와 정부의 지원, 적극적인 기부, 후원사 유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어 성공적인 경제올림픽을 실현했다. 현재까지 최소 5500만 달러(약 619억원)의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히며 "재정 부분에서 애초 2억6600만 달러(약 3000억원)의 적자 올림픽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깨뜨렸다"고 강조했다.

조직위는 흑자로 달성한 잉여금으로 기념 재단을 설립할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와 개최지 강원도, 조직위는 설립될 재단의 사업 내용을 협의 중이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평창조직위원회가 모든 면에서 대단히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IOC는 이런 위대한 업적을 인정하고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IOC 몫의 잉여금을 평창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직위원회의 흑자 달성 이면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경기장 관리 비용이 있다. 최대 규모 실내 경기장인 스피드스케이팅장과 환경단체의 반대 속 건설된 정선스키장의 사후활용 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선스키장 산림 복원 비용에만 약 1000억원이 소요 될 전망이다. 조직위원회는 IOC에 "12개 경기장 모두를 스포츠 이벤트 용도로 사용할 것이며 중앙정부와 강원도가 관리, 운영비용 부담 비율을 조율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